

전치부의 치수강 개방

전치부에서 치수강 개방은 지난해에 게재된 치수강 개방의 일반적 원칙에 준한다. 전치부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설면을 충분히 확대하여 치수가 치관 부위에 남아 치아 변색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치경부의 Lingual shoulder를 제거해 주어 설면 쪽의 근관 확대를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림 1, 그림 2)

상하악 전치의 근관은 보통은 하나이나 예외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하악 전치는 약 10~15%에서 두개의 별개의 근관을 가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림 3)

모든 전치의 치수강 개방은 설면에서 행해야하나 마모가 매우 심한 치아에서는 절단면에서 행해줄 수 있다. (그림 4)

전치부에 도재관이 되어있는 경우 치수강 개방은 주의를 요한다. 이런 환자에서는 치아의 실측 혹은 순측 경사를 정상 회복한 예가 있으므로 치수강 개방시 이를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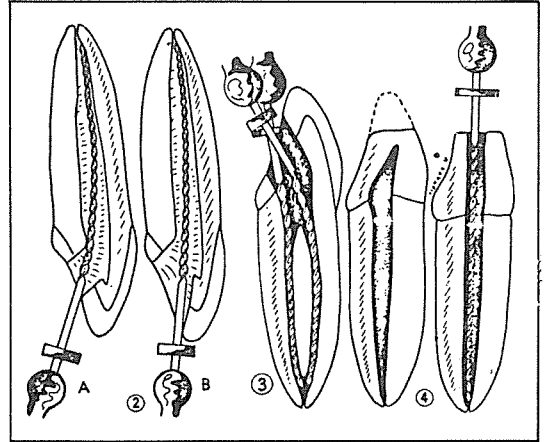


그림 2. A. 치수강 개방을 너무 작게 한 경우, 설측 근관형성이 안된다. B. 알맞게 확대한 경우.
그림 3. 하악 전치에서는 별개의 두개의 근관을 가진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림 4. 절단면의 마모가 심한 경우 절단면에서 치수강 개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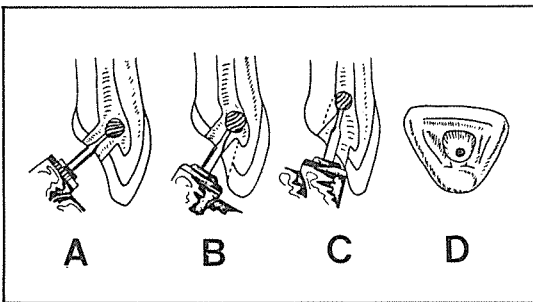


그림 1. A, B. 치수강 개방은 round bur로 행한다. 치수강내에서 밖으로 제거해 낸다. C. Lingual shoulder의 제거. D. 치수강 개방이 끝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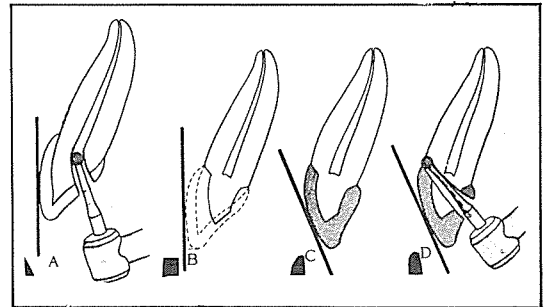


그림 5. A. 정상적 치아의 치수강 개방. B. 순측 삭제를 많이 행하고, C. 도재관으로 순측경사를 변경시킨 경우, D. 치수강 개방시 치경부쪽으로 뚫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정우치과기공소

Jung Woo Dental Lab.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45번지 (혜암빌딩 5층)

전화 765-0606, 743-6633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45번지 (혜암빌딩 5층)